

대우건설 김보현號... “수익 극대화로 건설업 위기 돌파”

내실경영·리스크관리로 위기타개
스마트건설·신사업으로 동력확보
수평적문화·협업 100년기업 도약
글로벌시장 다각화로 경쟁력 강화

김보현 대우건설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우건설 본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내실경영 기조 속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줄여 당면한 건설업 위기를 타개하겠다”며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튼튼한 대우건설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과 정진행 부회장을 비롯해 250여명의 임직원과 그룹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김대표는 스마트건설과 신사업 진출도 강조했다.

그는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인 건설정보모델링(BIM)과 사전제작 콘크리트(PC) 등 스마트건설 기술을 활용해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업계를 선도하



지난 17일 대우건설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개최된 대표이사 이·취임식에서 김보현 사장이 대우건설 사기를 흔들고 있다. /대우건설

겠다”며 “뿐만 아니라 건설이외의 신사업 분야에 대한 구체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대표는 “대우건설이 지난 50년 동안 쌓아온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평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팀·본부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전 최우선 문화를 강조하며, 정성을 다해 현장 관리를 하자고 당부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새로 취임하는 김보현 사장은 대우건설 인수합병(M&A) 과정을 총괄하며 두 회사가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고,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라며 “앞으로 김보현 사장의 리더십 아래 전 직원이 소통하고 협력해 더욱 우수하고 혁신적인 글로벌 건설사로 도약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전임 백정완 대표이사의 이임식도 열렸다. 백 전 대표는 대우건설이 중흥그룹에 편입되고 3년을 이끌어왔다.

백 전 대표는 이임사를 통해 “40년 동안 몸담아 온 대우건설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려 한다”며 “대우건설은 끊임 없는 도전 속에서 성장해왔고, 앞으로 더 어려움 앞에서 하나로 뭉쳐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대우건설은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는 정 회장과 김 신임 사장이 발맞춰 북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핵심 3대권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투르크메니스탄과 체코 등 신시장 개척도 병행해 사업포트폴리오의 다각화·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대표는 1966년생이다. 공군 준장

으로 예편한 뒤 2021년 대우건설 인수 단장을 맡아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과정을 총괄했다. 지난 2022년 중흥그룹 편입 이후에는 대우건설 고문직을 1년간 역임했다. 2023년, 2024년에는 총괄부사장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며 국내외의 현장 및 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다.

당초 백 전 대표의 임기가 남아있었지만 올해 실적이 부진한데다 내년 건설시장 역시 전망이 어두운 만큼 한 발 빨리 신임 대표이사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의 올해 3분기 실적은 매출 2조 5478억원, 영업이익 6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8%, 67.2% 감소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내년 건설시장 역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신임 대표이사 체제 구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상민기자 smahn1@metroseoul.co.kr

지방은행장 연임 여부 촉각... 안정 속 성장전략 주목

전북·광주銀, 현은행장 연임 확정
iM뱅크·부산·경남銀도 연임 우세
경영환경 악화에 ‘안정’에 방점

지방은행장들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7일 백종일 전북은행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연임을 확정하는 가운데 황병우 iM뱅크 은행장 겸 DGB금융그룹 회장도 이달 말 겸임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내년 3월에는 방성빈 부산은행장과 예경탁 경남은행장의 거취가 결정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지난 17일 현 은행장인 백종일 전북은행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임기는 각 1년이다. 앞서 4대 은행 가운데 3곳(KB국민·하나·우리은행)이 ‘쇄신’을 이유로 은행장 교체에 나선 가운데, 두 은행은 ‘안정’을 택한 모습이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두 은행이 임기를



백종일 전북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황병우 iM뱅크 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지속할 것이라 관측이 우세했다. 두 은행 모두 임기 내에 실적 개선 및 수익 다각화에 양호한 성과를 거뒀고, 지난 11월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이 3번째 연임을 확정하면서 ‘김기홍 체제’에서 임명된 두 은행의 입지도 공고해졌기 때문이다.

현 은행장들의 연임이 결정된 만큼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기존 전략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두 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소매금융 취급 확대를 통해 수익성 확대를 꾀하는 한편, 인

터넷 뱅킹과의 연계 상품 출시 등 외연 확대를 통한 수익 모델 다양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달 말에는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의 거취가 결정된다. 황 은행장은 지주사인 DGB금융지주의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만큼 연임이 다소 부담스럽지만, 상반기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의 전략 연속성을 위한 연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3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는 최근 적극적인 영업망 확대 전략

을 이어가고 있다. iM뱅크는 올해 하반기에만 기존 출점이 없었던 지역에 3곳의 점포를 신규 출점했고, 오는 2027년까지 11개의 점포를 추가 출점할 계획이다.

황 은행장이 시중은행 전환 이전부터 영업 확대 전략을 설계해온 만큼, 시중은행 전환 직후인 현 상황에서 새 은행장을 임명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내년 3월에 첫 임기를 마치는 방성빈 부산은행장 또한 임기를 이어갈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상반기에는 부산은행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여파로 소폭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24년 만의 경쟁 입찰이 벌어진 지난 9월 부산시 금고 입찰에서 금고 수성에 성공하는 등 성과도 뚜렷하다.

예경탁 경남은행장도 내년 3월 첫 임기를 마친다. 경남은행이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26.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최근 경남은행이 6개월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내부통제 강화가 변수로 남았다.

경남은행은 최근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부동산 PF 관련 금융사고로 6개월의 신규 PF대출 취급 중단 처분을 받았다. 다만 해당 금융사고가 예 은행장의 임기 이전에 발생했던 만큼, 예 은행장의 연임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들이 호실적 속에도 잇따른 내부통제 실패로 ‘쇄신’에 주안점을 두고 은행장 교체에 나선 반면, 각 지방은행은 큰 논란 없이 양호한 경영을 이어온 은행장들의 연임을 통해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관측했다. /안상민 기자 asj1231@

지역화폐 꼭 잡은 지방은행, 체크카드 등 취급형태 다양화

사용 번거로운 종이 상품권 대체
카드형·페이앱 등으로 편의성 ↑

각 지방은행이 위탁 운영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매 및 사용이 번거로운 종이 상품권을 대신해 카드형 상품권, 간편결제(페이앱) 등으로 취급 형태를 다양화해 기존 사용자의 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신규 사용자 유치도 겨냥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개 지방은행

(부산·iM·경남·광주·전북)이 지역화폐를 위탁 운영하는 지자체는 7곳(부산·광주·대구·포항·울산·창원·전주)이다. 해당 7개 지역 내에서 종이 상품권, 선불·체크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유통된 전체 지역화폐 규모는 약 3조 원 규모다.

지난 2017년 출범한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유가 증권(상품권)이다.

지난 2017년 출범 당시 대다수 지역화폐는 종이 상품권으로 출시됐다. 디

지털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구매와 사용이 번거로웠다. 특히 출장·관광 등을 이유로 지역에 방문한 경우는 구매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주요 지역화폐 위탁운영사인 각 지방은행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이 상품권뿐만 아니라 선불 및 체크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취급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다. 비대면 구매가 가능해진 만큼 기존 사용자의 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나 관광객 등 신규 수요도 합

계 겨냥했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을 운영한다. 간편결제와 카드를 지원하고, 월 30만원 이내의 결제금액에 대해 할인을 적용한다. 할인 비율은 가맹점 규모에 따라 7% 이내로 적용된다. 가맹점별 할인율은 부산은행 동백전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BNK경남은행은 울산시 지역화폐 ‘울산페이’와 창원시 지역화폐 ‘누비전’을 취급한다. 울산페이는 간편결제와 카드를 지원하고,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7%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누비전은 디지털 상품권과 종이 상품권으로 발급되며, 월 20만원 한도 내에

서 7%의 할인을 제공한다.

iM뱅크는 대구시 지역화폐 ‘대구로페이’를 운영한다. 대구로페이는 간편결제만 지원하지만 65세 이상 고객에게는 선물 카드를 제공한다. 한도는 월 30만원, 할인율은 7%다.

또한 포항시 지역화폐 ‘포항사랑상품권’도 iM뱅크가 취급한다. 간편결제 및 체크카드를 지원하며 구매 한도는 연간 800만원, 할인율은 7%다.

광주은행은 광주시 지역화폐 ‘광주상생카드’를 취급한다. 충전식 선불카드와 체크카드 형태로 운영되며 충전 한도는 월 50만원, 할인율은 7%다.

/안상민 기자